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미 증시, 생산자물가, 소매판매 둔화 속 혼조세로 마감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5일(목) 미 증시는 생산자물가, 소매판매 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관세발 영향력이 제한된다는 인식 속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 다만,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기술주는 일부 쉬어가는 흐름을 연출한 반면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등의 가치주 업종은 반등 (다우 +0.65%, S&P500 +0.41%, 나스닥 -0.18%).

미중 무역 협상발 낙관론에 근거한 단기 랠리가 차츰 벌어지며 시장은 이제 관세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경제 지표에 주목하는 구간으로 돌입. 4월 생산자물가(PPI)는 전월 대비 0.5% 하락하며 컨센서스(0.2%)와 전월치(0.0%)를 하회(YoY 발표치 2.4% vs 컨센서스 2.6%). 특히, 전월 대비 무역서비스(-1.6% vs 전월 +1.2%) 마진 급락에 기인한 최종 수요 서비스(-0.7% vs 전월 +0.4%) 부문 하락이 전체 생산자 물가 하락을 견인. 아직까지 미국 기업들은 관세 인상에 따른 부담에도 수요 위축을 우려해 비용 전가가 아닌 마진 축소로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

한편, 4월 헤드라인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1% 상승하며 전월(1.7%)을 큰 폭 하회. 특히, GDP 산출에 사용되는 핵심 소매판매(자동차 및 에너지 제외)가 전월 대비 0.2%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0.3%)를 하회하며 소비 둔화 우려를 자극. 금번 지표와 같이 향후 관세 회피를 위한 선구매 효과의 되돌림이 나타나면 소비 둔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평가도 이어짐. 다만, 외식비 지출(MoM, +1.2%)이 2개월 연속 견조한 흐름세를 연출한 점은 미국인들의 소비심리가 꺾이지 않았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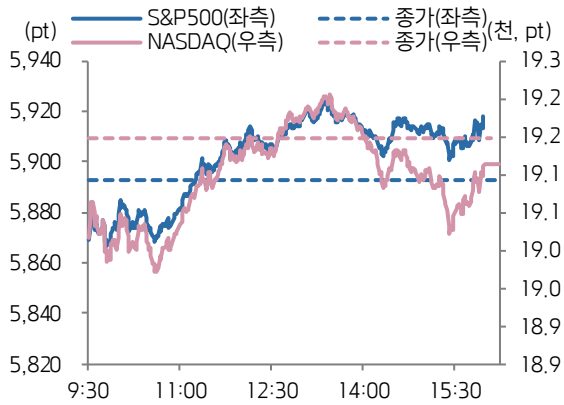
아직까지 관세발 영향이 실물 지표(하드데이터)의 완전한 위축세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금번 생산자물가와 소매판매에서 경기 둔화의 시그널이 차츰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경계 요인. 소비 풍향계 역할을 하는 월마트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어닝콜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여파로 이달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점증시킬 수 있는 요인.

이러한 가운데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도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지는 못한 모습. 이 날 파월 연준 의장은 공급 충격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향후 장기 금리 상향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언급. 구체적인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언급은 부재하였지만, 구조적으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여건 속 향후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해석. 즉, 최근 미중 무역발 협상으로 미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단기 랠리를 이어갔지만, 이제는 관세의 성적표를 확인해야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동성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7거래일 연속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랠리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가운데 양 지수는 숨고르기 흐름을 연출. 다만,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요인으로 수출주 대비 내수주로 자금이 유입된 결과 호텔,레저, 소매(유통)업은 상승 (코스피 -0.73%, 코스닥 -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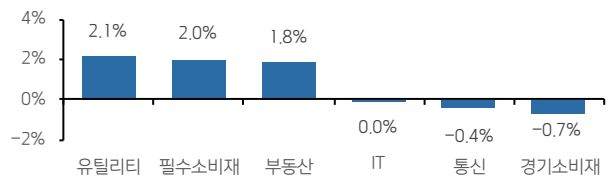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 또한 전일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방향성 부재한 채 개별 모멘텀 보유한 업종 및 종목장세 흐름 연출할 것으로 전망.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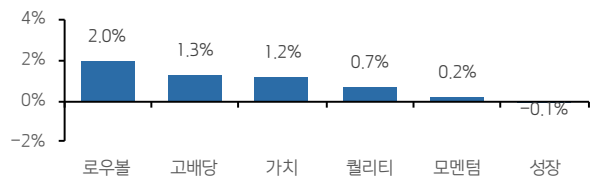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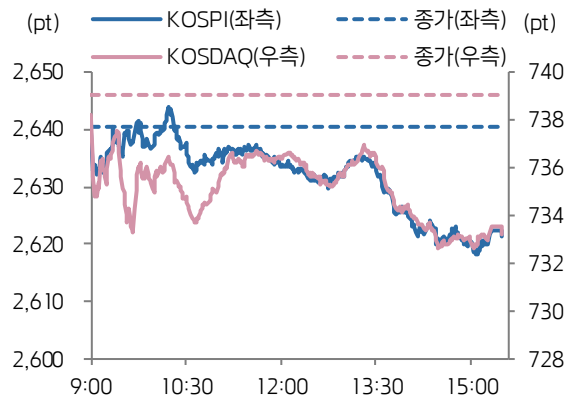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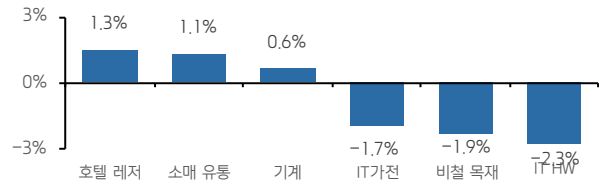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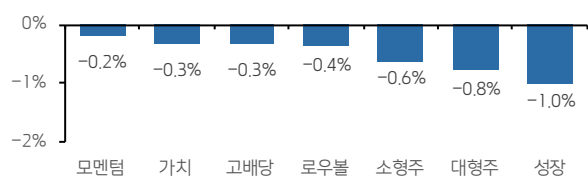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11.45	-0.41%	-15.36%	GM	50.12	-0.38%	-5.67%
마이크로소프트	453.13	+0.23%	+7.92%	일라이릴리	733.29	+2.48%	-4.85%
알파벳	163.96	-0.85%	-13.29%	월마트	96.35	-0.5%	+7.19%
메타	643.88	-2.35%	+10.07%	JP모건	267.49	+0.7%	+12.86%
아마존	205.17	-2.42%	-6.48%	엑손모빌	108.58	+1.01%	+2.78%
테슬라	342.82	-1.4%	-15.11%	세브론	142.26	+0.42%	-0.69%
엔비디아	134.83	-0.38%	+0.41%	제너럴일렉트릭	96.35	-0.5%	+7.2%
브로드컴	232.64	+0.22%	+0.65%	캐터필러	349.81	+0.04%	-2.75%
AMD	114.99	-2.32%	-4.8%	보잉	206.24	+0.74%	+16.52%
마이크론	95.45	+0.14%	+13.56%	넥스트에라	74.55	+3.3%	+4.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621.36	-0.73%	+9.25%	USD/KRW	1,398.00	-0.46%	-5.05%
코스피200	349.16	-0.75%	+9.86%	달러 지수	100.82	-0.22%	-7.07%
코스닥	733.23	-0.79%	+8.12%	EUR/USD	1.12	+0.11%	+8.05%
코스닥150	1,183.35	-0.75%	+4.74%	USD/CNH	7.20	-0.09%	-1.81%
S&P500	5,916.93	+0.41%	+0.6%	USD/JPY	145.67	-0.74%	-7.33%
NASDAQ	19,112.32	-0.18%	-1.03%	채권시장			
다우	42,322.75	+0.65%	-0.52%	지수	가격	DTD(bp)	YTD(bp)
VIX	17.83	-4.24%	+2.77%	국고채 3년	2.350	+0bp	-24.5bp
러셀2000	2,094.69	+0.52%	-6.07%	국고채 10년	2.710	-0.2bp	-16.1bp
필라. 반도체	4,932.45	-0.57%	-0.95%	미국 국채 2년	3.961	-9bp	-28.1bp
다우 운송	15,041.11	+0.04%	-5.38%	미국 국채 10년	4.432	-10.5bp	-13.8bp
상해종합	3,380.82	-0.68%	+0.87%	미국 국채 30년	4.887	-8.3bp	+10.6bp
항생 H	8,509.67	-0.97%	+16.73%	독일 국채 10년	2.622	-7.7bp	+25.5bp
인도 SENSEX	82,530.74	+1.48%	+5.62%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지수	가격	DTD(%)	YTD(%)
Eurostoxx50	5,412.08	+0.16%	+10.54%	WTI	61.62	-2.42%	-12.18%
MSCI 전세계 지수	876.40	+0.27%	+4.17%	브렌트유	64.53	-2.36%	-13.55%
MSCI DM 지수	3,830.71	+0.2%	+3.31%	금	3,226.60	+1.2%	+19.85%
MSCI EM 지수	1,173.65	+1.45%	+9.13%	은	32.48	+0.79%	+11.08%
MSCI 한국 ETF	58.80	+0.32%	+15.54%	구리	464.45	+0.73%	+15.35%
디지털화폐				BDI	1,267.00	-1.02%	+27.08%
비트코인	103,463.65	-0.11%	+10.4%	옥수수	448.50	+0.67%	-4.32%
이더리움	2,537.63	-2.41%	-24.17%	밀	532.75	+1.52%	-6.45%
				대두	1,051.25	-2.46%	+1.59%
				커피	375.00	+2.8%	+21.5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5월 15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